

第13回百濟文化国際シンポジウム

제13회백제문화국제심포지엄

日時 2022年12月24日(土)9:30～15:15

方法 ZOOM配信

主催:帝塚山大学 奈良教育大学 公州大学校(韓国)

共催:東京学芸大学

後援:奈良県教育委員会 奈良市教育委員会 奈良新聞社

公益財団法人 韓昌祐・哲文化財団

スケジュール

9:30	開会		
9:30-9:45	開会挨拶	奈良教育大学 帝塚山大学長	宮下 俊也 蓮花 一己
9:45-10:55	基調講演		
	百済・日本・唐における衣冠の埋納と献納	帝塚山大学客員教授	牟田口 章人
10:55-11:05	休憩		
11:05-12:15	研究発表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 法の導入とその系譜	東京学芸大学教授	日高 慎
	百済大寺と百済	帝塚山大学教授	清水 昭博
12:15-13:15	昼食		
13:15-13:50	研究発表		
	百済と日本とに共通する如来像の一着衣 形式と金属加飾手法をめぐって	奈良教育大学教授	山岸 公基
13:50-14:00	休憩		
14:00-15:10	研究発表		
	天寿国繡帳と三国時代の韓半島	帝塚山大学大学院院生	徐 玉茜
	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 —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	帝塚山大学大学院院生	奥田 利伽
15:10	閉会		

일 정 표

9:30	접수		
9:30- 9:45	개회인사	나라교육대학 학장 테즈카야마대학 학장	미야시타 토시아 렌게 가즈미
9:45-10:55	기조 강연		
	백제 · 일본 · 당의 의관 매납과 헌납	테즈카야마 대학 객원 교수	무타구치 아키토
10:55-11:05	휴식		
11:05-12:15	연구발표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도쿄 학예 대학 교수	히다카 신
	쿠다라노오오데라와 백제	테즈카야마대학 교수	시미즈 아키히로
12:15-13:15	중식		
13:15-13:50	연구발표		
	백제와 일본 여래상의 공통된 착의형식과 금속가공법에 대하여	나라교육대학 교수	야마기시 코우키
13:50-14:00	휴식		
14:00-15:10	연구발표		
	천수국수장과 삼국시대의 한반도 기와로 본 백제계씨족 건립사원의 양상 -야마토 카타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테즈카야마대학 대학원	서 옥천 오쿠다 키쿠카
15:10	폐회		

目次

(基調講演)

百済・日本・唐における衣冠の埋納と献納	9
牟田口 章人 (帝塚山大学)	

(研究発表)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法の導入とその系譜	11
日高 慎 (東京学芸大学)	

百済大寺と百済	14
清水 昭博 (帝塚山大学)	

百済と日本とに共通する如来像の一着衣形式と金属加飾手法をめぐって	17
山岸 公基 (奈良教育大学)	

天寿国繡帳と三国時代の韓半島	20
徐 玉茜 (帝塚山大学)	

瓦からみた百済系氏族建立寺院の諸相—大和片岡地域を中心に—	24
奥田 利伽 (帝塚山大学)	

목 차

(기조 강연)	
백제 · 일본 · 당의 의관 매납과 헌납 · · · · ·	9
	무타구치 아키토 (테즈카야마대학)
(연구발표)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 · · · ·	11
	히다카 신 (도쿄 학예 대학)
쿠다라노오오데라와 백제 · · · · ·	14
	시미즈 아키히로 (테즈카야마대학)
백제와 일본 여래상의 공통된 착의형식과 금속가공법에 대하여 · · · · ·	17
	야마기시 코우키 (나라교육대학)
천수국수장과 삼국시대의 한반도 · · · · ·	20
	서 옥천 (테즈카야마대학)
기외로 본 백제계씨족 건립사원의 양상	
-야마토 카타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 · · · ·	24
	오쿠다 키쿠카 (테즈카야마대학)

日本列島における終末期古墳への版築工法の導入とその系譜

東京学芸大学
日高 慎

日本列島の古墳には、周知のように韓半島の古墳との直接的、間接的な関係が存在する。日本列島の横穴式石室の導入には百済の横穴式石室の影響がみてとれるし、須恵器生産の開始には加耶や百済の陶質土器の影響がある。また、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をはじめとして、羅州地域を中心に分布する埴輪の存在など、双方向の関係が存在した。

私は、2014年～2016年度まで栃木県壬生町車塚古墳という下野地域の7世紀代首長墓の発掘調査に関わってきた。壬生町、東京学芸大学、茨城大学の共同調査である。その過程で、凝灰岩切石の横穴式石室周辺で黒色土とローム土を互層に積んだ版築の痕跡を確認した。版築は、横穴式石室の下部のみならず、側壁の外側においても確認された(君島ほか2022)。

日本列島における版築工法の導入は、蘇我馬子により推古4年(596)に建立された飛鳥寺であり、日本列島で最初期に作られた寺院に堀込地業と版築工法が用いられている。古墳で最もさかのぼる可能性があるのが奈良県明日香村石舞台古墳の堤で、確実な例では同村岩屋山古墳があげられる(一瀬2005)。岩屋山古墳の築造以降、奈良県明日香村牽牛子塚古墳・同村中尾山古墳・同村高松塚古墳など多くの版築工法を採用した終末期古墳が見られるようになる。岩屋山古墳の築造年代については、7世紀初頭あるいは7世紀中葉～第3四半期などと諸説があるが、私自身は、白石太一郎氏の述べるように(白石2018)、7世紀中葉でよいと考えている。

奈良県橿原市植山古墳は、推古天皇と竹田皇子の最初の合葬墓と考えられるが(白石前掲)、東石室の両側や北側の墳丘断ち割り調査から、盛土は薄い土層ではあるものの版築ではなさそうである(石坂ほか2014)。植山古墳の南東に位置する橿原市菖蒲池古墳では、墳丘構築に版築が認められている(松井・石坂2015)。菖蒲池古墳は7世紀中葉の築造と考えられるから、版築工法の古墳への導入時期は7世紀中葉とするのが良いように思われる。

関東地域で版築工法を採用している古墳は20例以上あるが、多くの古墳が堀込地業をした上で、版築をおこなっている。版築工法そのものの導入が堀込地業と共にもたらされた可能性があり、まさに寺院建築との関わりを考えるべきである。東北地域において近年確認された終末期古墳の福島県白河市谷地久保古墳や野地久保古墳などでも、堀込地業と版築が確認されている(鈴木2005・2010)。関東地域の終末期古墳の代表例ともいえる千葉県栄町岩屋古墳(仲村ほか2017)あるいは千葉県山武市駄ノ塚古墳(白石ほか1996)では版築工法を採用していない。駄ノ塚古墳は出土した須恵器がTK209型式期であり、7世紀初頭の築造と考えられる。つまり、終末期古墳のなかで、版築の有無が年代差として理解できる可能性がある。

以上のように、日本列島において畿内と関東ではほぼ同時期に古墳築造に版築工法が導入されたようである。それぞれの地域の首長墓で、巨大な切石の横穴式石室の導入に際して寺院建築の版築工法が古墳に採用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

近年、韓国全羅北道益山市双陵で版築工法が確認された(李文炯2019)。益山双陵は、武王と妻・善花姫の墓と考えられているが、武王は641年に死去したといわれるから、7世紀中葉に埋葬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までの調査で、韓半島で版築工法が確認された古墳は益山双陵の他に可能性があるもの数例があるのみである(李東奎2021)。もちろん、今後の他地域を含めた調査成果を待たないといけないが、寺院建築が百済から日本列島に伝えられ、石室石材に応用される切石技術が伝えられる際に、古墳築造に版築工法を導入することも伝えら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その土木技術は、いち早く日本列島の各地の首長墓築造に際して伝えられた。今後は、各地の初期寺院の建立、各地の切石の横穴式石室の成立時期、終末期古墳への版築の導入などを、日本列島全域で改め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일본 열도의 종말기 고분의 판축 공법 도입과 그 계보

도쿄 학예 대학
히다카 신

일본 열도의 고분에는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고분과의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일본 열도에서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을 도입한 것에는 백제 횡혈식석실의 영향이 보이며 스에키(須惠器) 생산의 시작은 가야와 백제 도질토기(陶質土器)의 영향이 있다. 또한 영산강(榮山江) 유역에 있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을 시작으로 나주(羅州)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나니와(埴輪)의 존재 등으로 보아 쌍방향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발표자는 2014~2016 년도까지 토치기현 미부마치 쿠루마즈카 고분(栃木縣壬生町車塚古墳)

으로 불리는 시모즈케 지역(下野地域)의 7 세기대 수장묘(首長墓)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다. 미부마치(壬生町), 도쿄 학예 대학(東京學藝大學), 이바라키 대학(茨城大學)의 공동 조사이다. 그 과정에서 응회암 절석(凝灰岩切石)으로 된 횡혈식석실 주변에서 흑색토(黑色土)와 화산회토층인 황색토(黃色土)를 번갈아 쌓은 판축(版築) 흔적을 확인하였다. 판축은 횡혈식석실 하부뿐만 아니라 측면 벽 외벽에서도 발견되었다(키미지마 외 2022).

일본 열도에서의 판축 공법의 도입은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 ?~626)에 의해 스이코 4 년(596 년)에 건립된 아스카데라(飛鳥寺)로 일본 열도에서 초기에 창건된 사원에 굴착지업(掘込地業)과 판축 공법을 사용하였다. 고분에서도 가장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나라현 아스카무라 이시부타이 고분(奈良縣明日香村石舞臺古墳)의 제방으로, 확실한 사례로는 같은 지역 이와야야마 고분(岩屋山古墳)을 들 수 있다(이치노세 2005). 이와야야마 고분의 축조 이후, 나라현 아스카무라 켄고시즈카 고분(奈良縣明日香村牽牛子塚古墳), 같은 지역의 나카오야마 고분(中尾山古墳), 타카마츠즈카 고분(高松塚古墳) 등 판축 공법을 채용한 다수의 종말기 고분을 볼 수 있다. 이와야야마 고분의 축조 연도에 대해서는 7 세기 초 또는 7 세기 중엽에서 제 3 사분기 등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발표자 본인은 시라이시 타이치로(白石太一郎)씨가 주장하는 것 처럼(시라이시 2018) 7 세기 중엽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현 카시하라시 우에야마 고분(奈良縣橿原市植山古墳)은 스이코텐노(推古天皇, 554~628, 재위 593~628)와 타케다노미코(竹田皇子, 생물년미상)가 묻힌 최초의 합장묘로 생각되나(시라이시 전술), 동쪽 석실의 양측과 북쪽 측면의 분구(墳丘)가 접합된 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토(盛土)는 얇은 토층이나 판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시자카 외 2014). 우에야마 고분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카시하라시 쇼분이케 고분(橿原市菖蒲池古墳)에는 분구 구축에 판축이 확인되었다(마츠이, 이시자카 2015). 쇼분이케 고분은 7 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판축 공법이 고분에 도입된 시기는 7 세기 중엽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칸토 지역(關東地域)에서 판축 공법을 채용한 고분은 20 여건 이상 있으나 다수의 고분은 굴착지업을 한 뒤에 판축을 실시하였다. 판축 공법 그 자체로의 도입이 굴착지업과 함께 전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땅히 사원 건축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토호쿠 지역(東北地域)에는 최근 확인된 종말기 고분인 후쿠이현 시라카와시 야치쿠보 고분(福嶋縣白河市谷地久保古墳)과 노지쿠보 고분(野地久保古墳) 등에서 굴착지업과 판축이 확인되었다(스즈키 2005・2010). 칸토 지역에서의 종말기 고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치바현 사카에마치 이와야 고분(千葉縣榮町岩屋古墳, 나카무라 외 2017) 또는 치바현 산무시 다노즈카 고분(千葉縣山武市駄ノ塚古墳, 시라이시 외 1996)에서는 판축 공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다노즈카 고분은 출토한 스에키가 TK209 형식기로 7 세기 초 축조로 생각된다. 즉, 종말기 고분 중에서 판축의 유무를 통해 연대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일본 열도의 키나이와 칸토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고분 축조와 판축 공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지역에 있는 수장묘에서 거대한 절석 횡혈식석실을 도입할 때 사원 건축의 판축 공법이 고분에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전라북도 익산시 쌍릉(羅北道益山市雙陵)에서 판축 공법이 확인되었다(이문형 2019). 익산 쌍릉은 무왕(武王)과 그의 부인 선화(善花) 공주의 무덤으로 생각되나 무왕은 641년에 붕어하였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7세기 중엽에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판축 공법이 확인된 고분은 익산 쌍릉 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몇 가지 사례만 있을 뿐이다(이동규 2021). 물론 앞으로 다른 지역을 포함한 조사 성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사원 건축이 백제에서 일본 열도로 전래되고, 석실 석재에 응용된 절석 기술이 전해질 때에 고분 축조에 판축 공법을 도입한 것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토목 기술은 빠르게 일본 열도 각지의 수장묘 축조에 도입되었다. 앞으로는 각 지역의 초기 사원의 건립, 각 지역의 절석 횡혈식석실의 성립 시기, 종말기 고분으로의 판축 도입 등을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